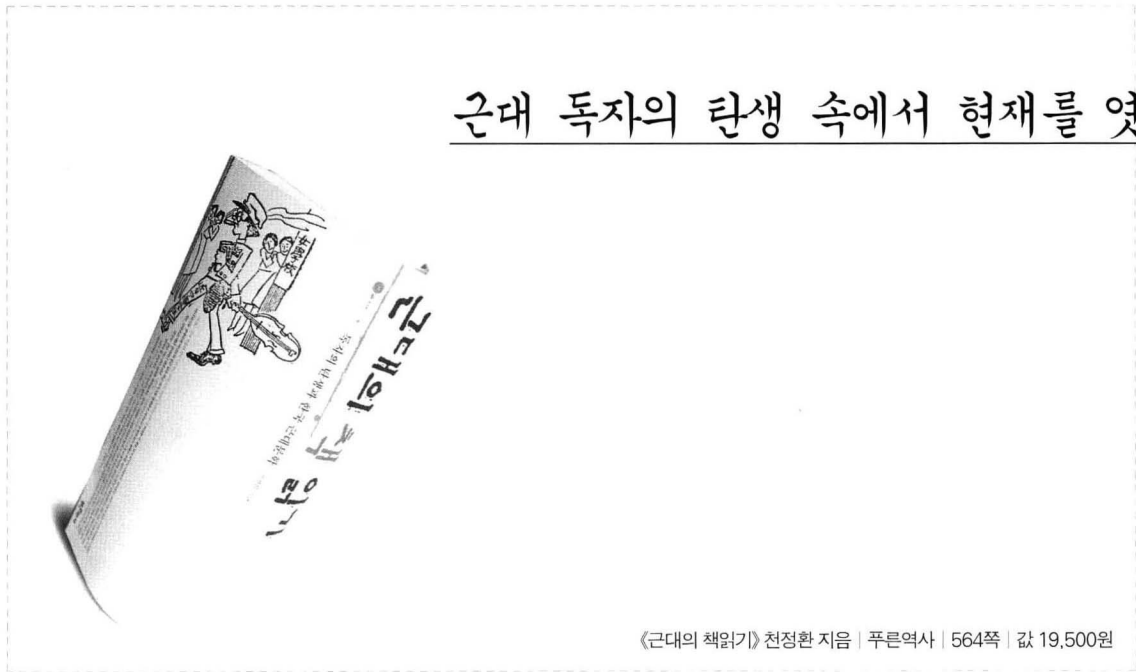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가 지난 11월 12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선정회의는 〈출판저널〉 재창간 이후 11번째로 2003년 마지막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들은 지난 월호까지 선정되지 못한 분야의 책을 애써 살피거나 한 해 동안 눈여겨봤던 출판사를 화제로 올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보에 오른 10종의 책은 홍순명의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부키), 조용호의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마음산책), 김윤재의 《위싱턴 퍼즐》(삼우반), 김선우의 《도화 아래 잠들다》(창비), 이병천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창비),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이동순의 《이동순 민족서사시 홍범도》(국학자료원), 교수신문이 엮은 《우리의 이론 어디로 가는가》(생각의나무), 천정환의 《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이윤기의 《내 시대의 초상》 등이었다. 이 중 《도화 아래 잠들다》, 《이동순 민족서사시 홍범도》, 《근대의 책읽기》, 《내 시대의 초상》 등이 1차 선정과정을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도화 아래 잠들다》와 《근대의 책읽기》가 남았다.

김선우의 《도화 아래 잠들다》는 '시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두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그동안 여성시인들이 보여주었던 여성으로서의 포용이나 가부장적 억압으로 인한 고통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여성 고유의 풍부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보여줬다는 점이 기자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또한 그동안 천착한 여성성이 이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 오히려 여성성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천정환의 《근대의 책읽기》는 '근대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책(출판)을 통해 본 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이다. 스스로 책보다는 리모컨 돌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읽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형성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지식풍경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저작으로 평가됐다.

〈출판저널〉은 애써 김선우의 《도화 아래 잠들다》를 뒤로 하고 천정환의 《근대의 책읽기》를 올해의 마지막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비록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미래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한 점과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자기완결성에 자족하는 논문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일반 대중과 소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이 책을 출간한 푸른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보여준 참신한 기획과 용기있는 시도가 선정배경에 한몫했음을 밝힌다. **한겨레**